

진정한 멋진 현장의 무재해!

-삼부토건(주)음성-생극간 도로현장-

아침 일기예보가 심상치 않다.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온다는 예보다. 취재를 못할까 서둘러 길을 나섰다. 그러나 가는 길은 어느 한 곳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곳이 없어 답답하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충북 음성은 꼬불 꼬불한 국도와 저수지 그리고 가을이 어우러진 모습이 정겹다.

그 옆 또다른 도로가 새로이 태어나고 있었다. 폭 20m의 4차선, 길이 18.7km의 음성-생극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가 오늘 찾은 현장이다.

교통사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간 원활한 연결을 도모하기 위한 이 도로 현장은 삼부토건(주)(박희규 소장)에서 시공하고 있다.

2001년 2월에 착공하여 2006년 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현장은 현재 공정을 36%로 무재해 3배를 기달성하고 4배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선안전 후만족”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은 “건설현장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어려운 것이 산재되어 있으며, 수많은 인간관계의 사슬까지 얽히고 얽힌 곳입니다. 이러한 얽힌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먼저 안전을 취하는 것입

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100%) 만족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즉 “선안전 후만족”인 것으로 박희규 소장이 늘 강조하는 말이다.

안전관리는 곧 인간관리

박희규 소장의 현장 안전에 대한 관심은 애뜻하다. 그러나 안전에 관심이 많은 안전관리자나 소장만이 안전을 외친다고 무재해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전 직원 근로자가 푹푹 뭉쳐 무재해를 이야기하고, 안전을 이야기할 때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고, 이는 곧 무재해로 다가온다는 것이 박소장의 견해다.

이러한 기본지키기는 현장 안전조회에서부터 시작된다. 주변정리·정돈, 개인 몸 상태 점검 및 체조 등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그리고 음주 측정기로 전날의 음주상태를 점검하여 알콜 농도가 높은 근로자는 현장에 투입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 박소장은 인간존중의 이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관리는 곧 인간관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희규 소장

ALL SAFETY 운동 전사적 전개

삼부토건(주)는 2001년부터 ALLSAFETY 운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해율 목표 0.3% 이하 달성, 재래형·반복형 재해 근절, 경제적 안전시공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운동은 현장별로 환경에 맞는 중점관리 항목을 선정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ALL SAFETY 운동의 일환으로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의 철저”, “안전난간의 철저한 설치”, “현장 정리·정돈의 생활화”를 세부 실천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본사 안전관리팀에서 매월 집계하여 종합평가한 후 연도말 안전관리 최우수·우수 현장 선정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포상을 수여한다.

반복적인 교육으로 안전생활화 추구

음성-생극간 도로 현장에서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안전활동에 대해 박소장은 서슴없이 “안전교육”이라



고 답한다. 반복적인 안전교육은 현장에서의 안전생활화를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가장 큰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교육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사례 중심의 교육내용이 근로자의 피부에 곧 바로 와 닿기 때문일 것이다.

그 외 정회중 안전과장의 이름 불러 인사하기가 자율참여 활성화에 한목한다. 현장사람들은 복잡한 것 보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고생이 많습니다. 힘든 것은 없나요?”라고 인사하는 단순한 것을 좋아 한다고 한다.

이는 안전교육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저절로 조성되며, 교육효과의 극대화로 나타난다.

그 밖에.....

토목현장은 건설 기계·기구를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건설 기계·기구에 대한 재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이곳에 출입하는 장비기사에게는 별도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계 작동시·이동시·



초일류 현장 탐방

작업시·종료할 때의 위험요소와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해 안전활동을 습관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현장에서는 10월 말에 소방설비점검(소화기 일제 사용점검) 및

11월 초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화재 진압, 대피에 대한 시범훈련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가설 사무실 및 숙소에서의 전열물의 사용을 금지하여 전기 화재에 대한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추는 철저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에서 28년의 세월을 보내고 개인적으로 현재 무재해 7배를 달성하고 있는 박소장은 “안전은 멋입니다. 멋을 모르면 안전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특이한 정의의를 내린다. 멋은 먼저 자신의 복장을 살피는 것



이고,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이는 곧 안전의 기본이 습관화되는 것이라고 한다.

끝으로 멋을 낼 줄 아는 삼부토건(주) 음성-생극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이 준공 그날까지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무재해

준공 현장으로의 탄생을 기원한다. 

<최종덕 기자>

